Title: Hwalssal
No. 45, Aug., 1954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6
Copy___

0647 R

MAR 31 1955

Please return to the Korean Unit

45

1954. 8

시사만화잡지

활살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위대한 쏘련의 과학

박승히 그림

지난 6월 27일 쏘련에서는 유효능력 5천 키로왓트를 가지는 원자력에 의한 첫 산업용 발전소가 조업을 개시하였다 이는 인류사회의 항구한 평화와 복리의 증진을 위한 과학에서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것으로써 원자력을 대량적 인간도살의 흉악한 무기로 악용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결정적 타격으로 된다 지금 쏘련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은 5만내지 10만키로왓트의 발전 능력을 가진 평화적 산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해방탑에 꽃다발을 드린다

사람들은 모란봉위 윗등성이로 올라와 지성 어린 꽃다발과 화환을 해방탑에 드린다。장미꽃 백일홍 추립프 그리고 여러 가지 꽃들은 펄기 펄기 8월의 해양 아래 그윽히 냄새를 풍으며 단정히 놓였다

솜인양 흰 구름이 떠 도는 하늘 높이 대리석으로 짜아 세운 해방탑은 웅장하게 건설 되여 가는 영웅의 도시! 평양의 거리와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내려다 보며 거연히 섰다。

오늘은 8월15일! 아홉번째 맞이하는 우리 조선민족의 가장 커다란 명절 해방의 날이다。

조선인민들은 지금 미제를 격멸하던 그 힘 그기세로 전후 인민 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의 완수 및 초과완수를 위하여 쇳물이 흐르는 용광로 앞에서 건설장에서 이삭이 패여 늠실 거리는 전원에서 이 날을맞는다

영원히 조선민족의 가슴에 아로 새겨진 붉은 10월의 아들! 우리의 해방자! 쏘베트군대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들이며!—

모란봉 해방탑 앞에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구름같이 모여 든다。모다 지성 어린 꽃다발을 탑에 올린다。우리들도 여러가지 여름꽃으로 묶은 꽃다발을 탑에 올리였다。

얼마후 우리들은 해방탑 주위를 한번 돌아본 다음 붉은 기 휘날리며 이땅에 진주한 쏘베트군대와 조선인민이 두 손을 마주 잡고 환희에 넘친 모습을 부각으로한 장면을 오래도록 서서 바라 보았다。

감격은 다시금 가슴을 따린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이 안타까히 기다리던 해방! 이날의 감격을 어찌 이 땅에 생을 타고 난 모든 사람들이 잊을수 있으랴!

굴욕과 고문과 채찍과 기아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자유와 행복이 깃들었다。우리의 선렬들이 감옥에서 교수대에서 피를 흘리면서 쟁취하려던 그 생활이 우리앞에 실현 되였으며 진정 우리 앞에는 새 생활이창조되였다。

조선인민들은 붉은별 반짝이며 이 땅에 찾아온 해방의 은인 의로운 벗들을 얼사 안고 거리면 거리 마다 마을이면 마을 마다 불 덩어리 같이 뜨거워진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땅이 뒤 흔드도록 이날 만세를 외쳤던 기억이 다시 새롭다

얼마후에 우리들은 탑에새긴 글을 한자 한자 내리읽었다。

벌써 수 없이 읽어 본 글이다。

해방탑을 처음 세웠을때 부터 모란봉에 올라올때에는 으레 읽어 본 글이다 그러나 언제나 읽고 싶은 글이며 특히 오늘은 더욱 그러하다。

—조선인민을 일본의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조선에 자유와 독립을 가져온 위대한 쏘련군의 영웅적 공훈은 천추 만대에 길이 빛나라!—

우리들은 마치 인민학교생도 처럼 또박 또박 소리 내여 읽었다

그 다음은 또 한 쪽의 글도 마주 읽었다

—위대한 쓰딸린대원수의 령도로써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는 이루어졌으며 이 승리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흘린 피로써 쏘련 인민과 조선인민의 친선은 굳게 맺어졌나니 여기에 탑을 세워 전 인민의 감사를 표시하노라!—

미제 날강도놈들이 이 땅에 침략의 불길을 질렀을때 쏘베트군대에 의하여 해방 되였으며 해방후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새 생활 새 행복을 원쑤들에게 짓밟힐수는 없었다 다시는 고역 노예의 옛날을 겪지않을 결심으로 조선인민들은 영웅적으로 싸웠다 쏘련인민들의 성원은 계속 되였다 조선인민은 당과 정부와 수령의 주위에 철석 같이 뭉쳐 원쑤와 싸워 영광스러운 승리를쟁취 하였다

오늘은 수풍발전소와 김책제철소와 남포 제련소 흥남 비료공장 그 어느곳에서나 위대한 쏘련 인민의 국제주의적 뜨거운 손길은 미치어 파괴 되었던 공장이 일며서고 넓은 전원에서 뜨락또르가 달린다

우리들은 눈 앞에 펼쳐진 평양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모란봉으로 부터 넓게 일직선으로 남평양으로 뻗은 쓰딸린 거리! 위대한 쏘련군대가 해방시켰으며 우리들이 피로써 수호하고 땀으로 건설한 조국의 거리로 사람들의 물결이 흐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를 모시고 이 날을 경축하기 위하여 시위행렬에 참가하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 군무자 학생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소리 높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한다 지축을 울리는 사람들의발 걸음이 거리를 휩쓸고 있다

강 건너 공장들의 굴뚝은 하늘 높이 솟고 준공된 대동강 철교는 자기 몸뚱이인 굵은 철재를 흐르는 강물 위에 비친다 시선이 멎는 곳 마다 고층건물이 키 높이 올라가고 있다

쏘련인민이 이 땅에 끼친 위대한 공훈은 길이빛나라!

해방의 그 날에 열린 대로로 조선인민들은 지금 3개년 인민경제 계획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하여 당과 정부와 수령의 가르침 받아 힘 차게 나아간다!

모란봉 맑은 하늘 높이 솟은 해방탑을 우러러 우리들은 천추만대에 잊지못할 쏘베트 인민들의 은공을 생각하 면서 시위행렬에 바삐 참가하려고 나려왔다。

1954, 8, 15, (리 송 원)

전국녀성대회에 대한 전 인민적 기대는 크다

리경희

전국 녀성대회는 해방후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평화적 투쟁에서 장성발전된 녀성들의 위력과 3년간의 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과 투쟁 경험들을 총화하며 민주기지의 공고화를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완수를 위한 투쟁에 전체 녀성들을 궐기시키며 쏘련 녀성들을 선두로한 전세계 평화애호 민주녀성들과의 국제적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할것을 과업으로 하였다

이 력사적 의의를 가진 전국 녀성대회는 전체조선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소집되였다

그것은 금번 녀성대회가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의 성과적 달성에서 녀성들의 창조적 로력적 위훈을 보다던 빛나게 하는데 획기적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조선녀성들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해방된 이후 일제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지도와 배려하에 남자와 동등한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각부문에 진출하여 조국 창건을 위한 평화적 건설투쟁에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발휘하였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선과 후방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애국적 헌신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였으며 지금은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에 한 사람같이 궐기 하고 있다

자기 조국의 자유 독립과 영예를 위하여 전체조선인민들과 더부러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궐기한 조선녀성들은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쟁취하였다

가혹한 전쟁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타개 극복한 공화국 녀성들의 심장속에서는 항상 우리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쑤의 침해로부터 수호 하겠다는 일념만이 불탔다

조선녀성들은 자기들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딸들을 전선에 보낸후 그들의 뒤를 이여 공장과 기업소와 전원에 진출하여 자기들의 온갖 정열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바쳤다

승리한 오늘 전체 녀성들은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을 높이 받들고 모다 한사람같이 궐기 하고 있다

벌써 많은 녀성들은 공장과 기업소에서 농촌과 도시에서 각각 자기들에게 맡겨진 전투적 임무 수행에 창조적 로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같은 복구건설의 치열한 투쟁 환경속에서 소집된 전국 녀성대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조선 녀성들의 생활에서 거대한 사변으로 될것이 의심할바 없다

조선 녀성들은 전국 녀성 대회를〃힘찬 증산 투쟁으로 맞이하자〃 라는 구호 밑에 온갖 창발적 로력위훈을 세우며 대회를 맞이 하였다

로력영웅 고영숙 동무의 직포법을 연구습득하여 8대 공으로서 자기계획을 초과 실행하고 있는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주병선동무는 1•4 분기의 자기의 생산 계획을 115•6%로 초과완수하였으며 특히 대회 소집을 계기로 하여 6월 21일 현재 까지 자기 계획을 123%로 실행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조선녀성들이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바치여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공화국 녀성들은 인민정권하에서 남녀 평등권을 향유한 자기들의 힘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있으며 또한 이 정권만이 녀성들의 자유 권리 어린이들의 행복을 계속 보장해 줄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있다

언제나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심오한 배려와 사랑속에서 살며 일하는 것을 큰 행복으로 알고 있으며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의 공고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오늘 전체 조선녀성들은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여 원쑤들의 온갖 파괴 암해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며 그들의 활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는 사업을 강화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창조적 로력과 민주건설의 성과를 보위하며 우리의 인민 무력을 강화하는 사업과 인민군대 원호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전국 녀성대회를 통하여 공화국 녀성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단결된 전투적 력량을 시위하며 전체 조선인민들과 더부러 조국 해방 전쟁에서 원쑤들을 물리친것처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우리나라의 무궁무진한 번영과 어린이들의 보다 아름다운 행복을 위하여 3개년 계획의 완수 및 초과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 열성과 헌신성을 다 발휘함으로써 전체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며 영웅적 조선녀성들의 영예를 더욱빛낼 것이다

복구건설에 나선 공화국 녀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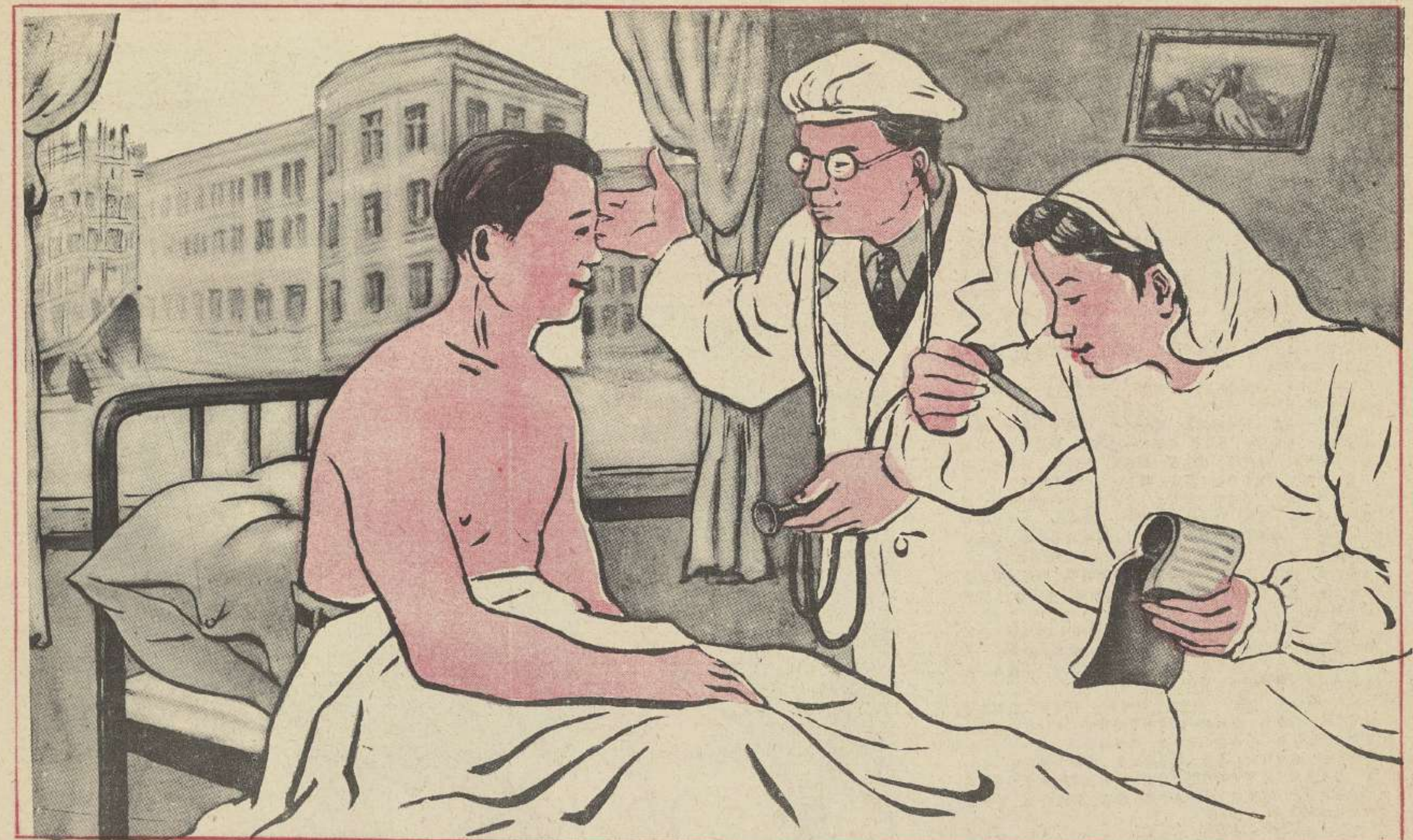
원광수 그림

—나날이 고층건물이 일어서며 어찌도 복구 건설이 빠른지 어제가 옛날이야!
—한달전에 출장간 순돌 아버지가 돌아오면 거리 면모가 바뀌어 인제 집을 못찾을거야……하하하…

«해방후 조국의 통일독립과 부강 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성과들에는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우리 공화국 녀성들의 줄기찬 로력적 성과가 새겨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우리 나라와 조선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의 초석에는 그 어느것을 불문하고 해방된 조선 녀성의 불타는 애국정신이 결정되여있지 않는 것이 없다»
(전국 녀성대회에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축하문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의 강화

공화국 정부에서는또다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강화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89호를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7월 1일부터 국가 사회 보장 대상자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외래 약값의 전부를 국가 부담으로 하게 되었으며 그 부양 가족들에게도 치료비의 60%를 국가가 보조하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공화국 정부의 배려의 또하나의 표현으로 된다



최한선 그림

환자—네—참말 벌써 저 중앙병원도 복구완료 되여 가고……당과 정부의 심심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완치된 몸으로 직장에 돌아가서 상쾌하게 일할것을 생각하면 무한히 기쁩니다

의사 우리들도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보건 생활 향상을 위한 정부의 결정이 채택 될때마다 의사로써의 긍지감을 더욱 높여 보건사업에 분발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이들……할아버지! 8, 15 해방전엔 어떻게 살아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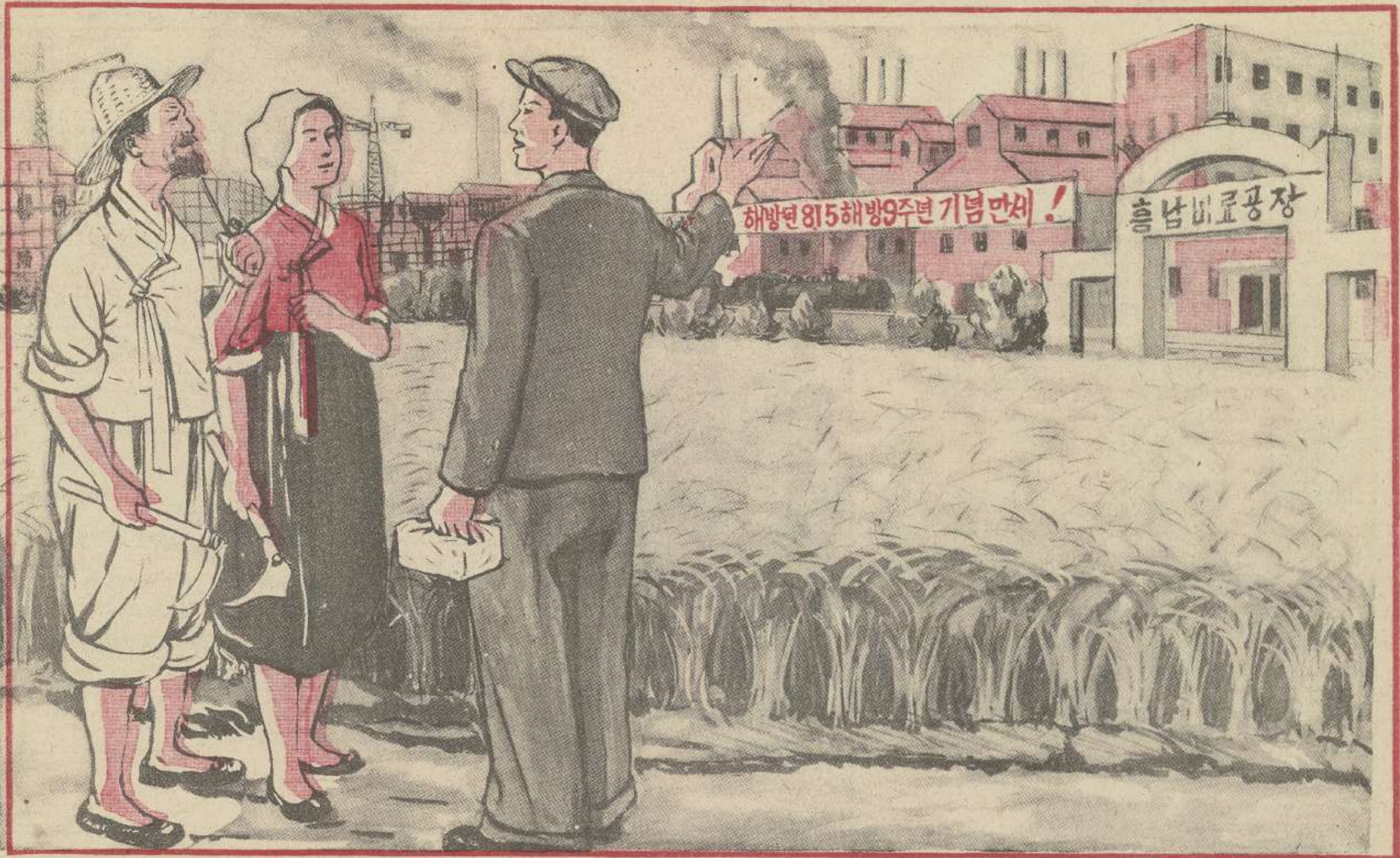
할아버지……곡식은 지주놈과 왜놈들이 다 빼앗아 가고 우리 농민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먹으면서 겨우 살아왔다 그러나 해방후 땅의 주인이 되여 잘살게 되였고 지금우리는 농업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농사를 지으며 나라에서는 뜨락또르로 논밭을 갈아준다! 너의들은 참 좋은 세상에 태여났다

최한진 그림

위대한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이러서는 흥남비료공장

쏘련 정부의 10억 루블리의 거대한 원조 대상에 포함된 흥남 비료공장의 복구 건설공사는 공화국 전체 인민들과 농민들의 무한한 기대와 전망속에서 현재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종업원들은 복구공사기간을 6개월간 단축하여 1955년 6월까지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다



—야! 벌써 공장 굴뚝에서 연기를 뿜는구나! 참 쏘련의 원조가 크다!

—아버지 래년부터는 비료가 쏟아져 나와요 인젠 비료 걱정이 없게 되였서요

안창수 그림

한 재정일꾼의 악몽

감흥3동 사무소 한구석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듯이 앉은 리종훈의 가슴은 몹씨 조였다

『한번 그럴듯 하게 결혼식을 해야하겠는데………어떻게 한담……』

그는 그간 동사무소에서 『머리를 짜내어』긁거 모은 돈이 『겨우』 5만원에 불과 하였던것을 생각하고 이맛살을 찌프렸다

—화려하게 결혼식을 지내야겠는데 그놈의 돈이 마음대로 돼야지

리종훈은 자나깨나 이러한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다

그때 뜻하지않은 소식이 그에게 전하여졌다

감흥3동사무소 세금징수원 리종훈을 서구역 인민위원회 재정부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옳지 이제야 내 소원이 이루어 지는군

재정부원으로 등용된 첫날부터 리종훈은『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분주히 서둘었다

어느날 리종훈의 방문을 한사람이 두다렸다

『선생님! 약소하지만 우선 옷감이라도 한벌……』

봉투를 받아쥔 리종훈은 만면에 희색을 띠우면서 응대한다

『당신네 세금은 안심하시요 한두달쯤 문제가 아니니까』

손님을 돌려보낸 리종훈은 즉시 봉투를 뜯어 본다

—현금 8.000원—

—세금 체납자는 나의 유일한 원조자가 된단말이지

그는 자기가 담당한 인흥3동을 부지런히 쏘다닌다

그러나 그는 세금 체납자를 좀체로 찾을수 없었다

많은 애국적 상인 기업가들이 "국가 세금을 기한전에 납부하자"는 구호에 호응하고 있는것이 리종훈을 불안케한다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야겠는데 어찌 한단말인가—

수심에 쌓여 앉아있는 리종훈을 찾아 수명의 상인들이 나타났다

—길은 역시 열리는구나

그는 그들이 세금 체납자들인 것을 곧 알수 있었다

『세금은 좀더 연기 해드릴테니 그것을 장사 밑천에 돌려 더큰 리익을 보시요』

상인들에게 던지는 리종훈의 말은 매우 "관대하다

상인들은 납세독촉을 면하면서 자주 리종훈에게 욕반가주를 권하였고 한때는 "1급 1만9000원"이 든 봉투도 그의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의 생활은 더욱 방탕해졌다

결혼식 날을 꼽아 보며 앉아있는 리종훈에게 또 두 상인이 달려왔다

『선생님! 이것을 부탁하며구요』

돈봉때기를 내밀며 하는 두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종훈은 냉큼 그것을 받아들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모두 이처럼 제결혼식에 대하여 동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다만 우리는 선생님께서 일생에 한번바께없는 좋은 날을 한가한 마음으로 지내시도록 미리 세금을 바치려는것 뿐이지요』

『이게 세금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저의들 사업소득세입니다』

불쾌한 방문객을 돌려보낸 리종훈은 그들로부터 접수한 돈묶음을 물끄럼히 들여다 본다

—아무러나 내 용색은 펴게 되였다 당장 결혼식 준비가 요구되는데

국가세금 89, 614원은 리종훈의 수중에 들어가 화려한 옷감과 술 떡 고기등으로 변해 버렸다

"세금 117, 614원 뇌물금 30, 000여원 세금류용으로 장사한 리득금 20, 000여원" 이로써 리종훈의 결혼식은 화려하게 진행되였으며 그의 생활은 더욱 사치해졌다

그러나 제한없는 방탕과 사치는 그의 생활에는 정비례로 많은 금전이 요구되였다

『나의 생활은 언제나 행복할것이며 풍족할것이다 지금이라도 돈 뭉테기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행운』과『신념』이 리종훈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누가 기대할수 있겠는가?

인민들의 눈은 날카롭다 국가 재산을 탐오하는 리종훈의 부화한 생활을 더는 용서 할수없다 (윤 원 걸)

엉터리 없는 사업순서

평남도 약수리 인민위원회위원장 김승철동무는 오늘도 리 사업을 위하여 「명철」한 두뇌를 짜내고있다

『一자! 일도 너무 밀리다 보니 집에도 못가보구 밤낮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못당해내겠구나!』

김승철동무는 책상에 맞우앉아 더욱 『심각한연구』에 잠기었다

그렇지! 일이란 아무리 밀려도 순서가 있는것이니 차례 차례 해야하는법이야!— 이렇게 생각한 위원장김승철동무는 생산지도원을 불러서 사업의 진행정형을물었다

『조기작물 현물세는 어떻게됐소?』

『네! 납부준비중입니다』

『하과작업은 어떻게되고?』

『네! 그도 막 진행중이지요!』

『좋소! 빨리 빨리 재촉하시요!』

김승철동무는 정형을 알아본후 연신 그것을 수첩에다 적는다 이때 생산지도원은 우물 쭈물하다가 말을 떼기 시작하였다

『저—그런데 내각지시 71호에의한 풀베기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사업은 어떻게 하랍니까?』

이말을 들은 김승철동무는 생산지도원이 하는말이 못마땅하다는듯이 지도원의 얼굴을 한참 치여다보고나서

『동무! 사업이란 선후차가 있는 법이요 농민들의 몸뚱이가 둘인줄아루! 이거 것덕 저거것덕하다가는 아무일두 안되오 하나 하나 질서있게 해나갑시다』

하루는 녀맹위원장 조옥실동무가 김승철동무를 찾아왔다

『위원장동무 다른 리 들에서는 풀베기가 한창인데 우리 리 에서는 어떻게 하실라는지요?』

『일이란 하나 하나 차례로 해야하는 법이유 너무들 서둘지마루! 나도 생각이있어 하는일이니까!—』

김승철동무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말없이 앉아있다가 툭 이렇게 한마디 내쏘았다

× × ×

7월도 하순이 가까운 어느날 위원장 김승철동무는 군으로부터 다음과같은 공문을 받았다

— 군내 풀베기 중간검토에 대하여……………………

성3리 풀베기는 7월15일 현재 58%………마산리 풀베기는 53%………아직 보고하지않은 리 들에서는 지금현재까지 풀베기 실적을 시급히 보고할것!………—

공문을 읽고난 위원장은 당황하여『나도 꽤 일은한다고 하는데?……사업은 결과가말하는 법이다 나중에 봐야지 누가이기나……』

혼잣말로 두덜거리며 곧 생산지도원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하게하였다 그날저녁 리위원회 사무실에는 정당사회단체 책임자들과 각 인민반장들이 모였다 회의에서 김승철동무는 어성을 높여가며

『—동무들! 아직도 조기작물 현물세를. 못다냈으니 당장 풀베기 보고는 대체 어떻게할 작정들이요!—』

그는 마치 위원들이 잘못해서 리 사업이 잘안되는것처럼 말하였다 이때 옆에있던 녀맹위원장의 말이 터져나왔다

『그렇기에 전부터 풀베기를 어떻게 할라느냐고 물었는데 위원장동무는 생각이있다고 하시드니 어떻게된셈입니까?』

그래도 김승철동무는 잘했다는듯이 변명을한다

『—사업에는 순서가 있는법이니 하든작업을 끝마추워야 풀베기를 할것이아니요—』

× × ×

농맹위원장은 묵묵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위원장동무의 말대로 덮어 놓고 사업의 순서만 찾다가는 풀베기는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각 농호들에서 로력을 유효적절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물세를 바추고 풀베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과도하고 현물세도 하면서 풀베기도 해야하우』

그러나 위원장 김승철동무는 종처럼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동무들은 작업조직을 해보지 않었으니까 모릅니다 일에 순서가 없이 덤벙대면 밥도 죽도 안되는 법이요 이러니 저러니 하지말고 2~3일내로 하든일을 끝마추고 풀베기는 돌격합시다』

이때 민청위원장이 나서며

『우리반에서는 현물세도 하면서 벌서 풀들을 적지않게 베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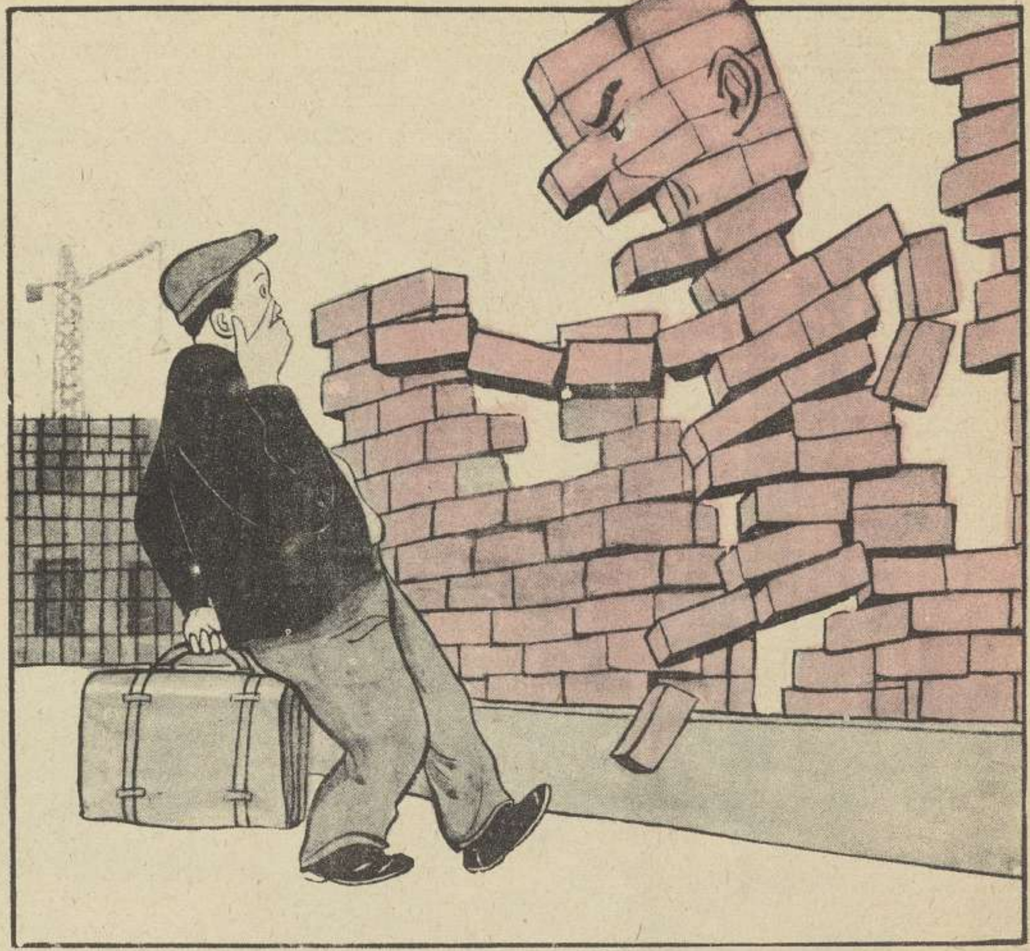
이 말에 위원장 김승철동무의 눈은 휘둥글해지며

『그것참! 하라는대로 안하고 일에 순서가 없이 풀들을 벳구만! 그렇게 말들을 안들으니 일이 잘 진행 되리있나?』

하고 혀를 끌 끌 채며 자기 고집을 부렸다

장 경 환

날 림 식 공 사



원광수 그림

—기사장동무! 당신『솜씨』에 또 허리가 불러졌소다!

일부 건축 지도 일군들은 일정한 시공 기술공정 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대신에 목전 사업에만 급급하여 무계획한 날림식 사업으로 그때 그때를 모면 하려는데서 공사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오작 시공을 반복하여 국가재정을 랑비하고 있다

계 약 실 행 에 등 한 한 지 배 인

최영근 그림

—지배인동무! 계약한 생산을정상적으로 공급키 위해 일찌이 계약물자 생산에 착수합시다

—매사는 침착해야하오 계약기일이 아직 멀었는데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지마오

—또 계약물품을 독촉합니다

—아—참그래! 동무!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였었는지?

해성요업공장은 서흥광산에서 1, 4분기 중으로 벽돌 17만 2천 매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품이 없다는 구실로 3·4분기가 되도록 전연 공급하지 않은 결과 서흥 광산의 기본 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서흥 석회 공장에서도 서흥광산에 석회 40톤을 주기로 계약하였으나 전혀 실천안함으로서 서흥광산 국가생산 과제 실행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

삼신탄광의『명철』한 지도일꾼들

석탄으로 접지된 작업복 소매를 탈쭐 걷운채 로혜인 현장지도원은 기사장을 찾았다

『기사장동무! 3평3율배굴이 문어졌습니다…… 보수할 로력배치를 어떻게할까요!』

그는 숨이차 헐떡이며 말했다

『보수…… 그것보다 생산에 몰려야겠소! 2, 4분기말이 다 되였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산에 집중해야 하겠소!』

기사장 윤태해동무는 문어진 굴을 보수할 생각보다는 석탄을 손쉽게 파내는것에만 급급 하였다。

이리하여 시간이가고 날이가는 사이에 문어진굴은 지압에 의하여 더욱 더 많이 상처를 입게되어 로력과자재는 몇배로 랑비되게 되었다

× × ×

선우산택 부리가다에서

『생산부장동무! 암석이나와 이곳 저곳에서 막히는데 탄장확보를 위한 굴진 작업을 해야겠는데요』

생산부장 김왈근동무는 머리를 흔들며

『굴진하지 않고도 채탄을 많이 하는 방도를 생각해 내야 되겠소!』

생산부장이나 기사장은 로동자들의 빈번한 제의를 묵살해 가며 생산에만 『몰두』한다

매미 겨울생각 못하는것과 같이 탄장의 준비없이 이곳 저곳을 되는대로 탄굴 하기만 하면 후에 부닥치는 곤난을 어찌할 셈인가?

× × ×

굴이 문어지고 탄장은 없어 파붙어갈곳은 없다

그리하여 돌격식으로 6월계획은 겨우 101%로 달성하였건만 7월초순 부터는 생산을 중지하고 탄장확보를 위한 굴진만을 해야되게 되였다

3평 3율배굴이 문어졌을때 즉시 수리했으면 적은 로력과 적은 자재를 가지고 수리 할 수 있었으나 기사장과 생산부장의 쓸데없는 공명심은 시기를 놓친후에 다시 수리에 착수케 하므로서 막대한 로력및 자재의 손실을 초래 하였다

기사장은『후—』하고 긴 한숨 소리와 함께 하장섬만 보이는 그마루를 드려다 본다

제아무리『명철』한 궁리를 하여도 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되였다

장 필 순

안악군 인민위원회 량정부 일군들은 량곡을 보관함에 있어서 지반을 규정대로 돋구지않고 쌓아 놓았을 뿐만아니라 배수로도 파지 않으므로써 비가 오게되면 량곡 무지 주위에 물이 흘러들어 귀중한 국가량곡을 손실시키고 있으며 보관을 소홀히하여 쥐들의 운동장이되고 쥐 량식 창고로 되고있다

최영근 그림

쥐1-인제는 식사후에 랭수한잔 마시기도 퍽 편리하게 됐네 그래—

쥐2—그렇게만 생각해 되겠나! 물이 많아 지기전에 낟알을 많이 가져다 두어야 겨울걱정이없네!

때 때 로 이 와 같 은 벽 보 를 찾 아 볼 수 있 다

—광고판으로 된 벽보판—

—이러고는「일거량득」이라고 말하겠지?!

—「천대」받는 벽보판—

—이럴바엔 차라리……?!

안창수 그림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조선 인민이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로 부터 해방된 민족적 명절 8.15 해방 9주년 기념 만세 !

9년전의 8월 15일!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우리 조선 인민을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시켰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들은 그날을 감격도 새롭게 다시 회상하면서 위대한 쏘베트 군대와 쏘련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안창수 그림

전체 조선 인민들은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과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의 환경속에서 우리의 민족적 명절 8, 15해방 9주년을 기념한다

리영춘 그림

1945

1954

우리는 그대들을 노래한다!

석팔봉

아침 노을 붉게 물들은
모란봉 언덕길을
우리는 한아름 꽃다발을 안고
길게 줄지어 올라간다

의로운 용사들이 피흘려 찾아준
8,15 해방의 그날부터
자유와 광명을 얻은 인민들이
새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조국 없는 뼈아픈 서름
다시는 당하지 않기위해
불타는 고지와 하늘과 바다에서
원쑤들을 무찔러 승리하였고

다시는 침략의 발길 얼씬도 못할
민주기지 굳게 다지는
오늘의 장엄한 복구 전선에
모두다 힘차게 일어나 싸우거니

지난날 원쑤와의 가렬한 싸움에서와
오늘의 눈부신 건설에서 공을 세운
영예론 사람들의 가슴에 달린 훈장
아침 햇살에 더욱 눈부시다

경애하는 우리 수령의 부름을 따라
줄기찬 로력으로 이루어진
웅장하고 화려한 저 쓰딸린 거리와
아름답고 웅장하게 일떠서는 거리와 마을에
행복이 꽃피는 이날!

해방과 원조의 크나큰 그 은공
골수에 깊이 새겨
한없이 뜨거운 마음들이
해방탑에 꽃다발을 드리노니

억만대로 이 나라 후손들은
우리의 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쓰딸린의 이름과 더부러
그대들을 영원히 노래하리!

(1954, 8, 15)

쓰딸린거리에서

박석정

모란봉가슴에 높이 선
해방탑 우러러 보며
확 트인 마음
가벼운 발걸음들이 일터로 간다
복구 건설장으로!

숭엄한 우리의 긍지
불타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여
천만 사람이
쓰딸린 거리
이렇듯 정성드려 다지었거니

아홉해 전 해방군의 발자국이
이땅에 닿은날
우리의 거리에서"우라" "만세"소리
산울림 하고
얼마나 우렁찬 노래가 울려 갔던가
얼마나 보람찬 생활이 시작되였던가

삼년여 가렬했던 전쟁포화 속에서
그대들이 해방시켜준 이 나라의
한치의 땅 한그루의 나무를지켜
우리 그렇게 용감히 싸워
끝끝내 미제를 무찔러 승리했다

이제 장엄한 복구 건설 노래 드높이
평화적 로력의 열에 마냥 일떠서는
거리와 마을들에서
화려하게 다져진 쓰딸린 거리에서
우리들은 위대한 쏘련인민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일제의 말로

미제의 패배

곡식의 호소

일부 군들에서와 일부 농촌 지도일군들은 제때에적기추수및탈곡사업 에대한 옳바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므로써 다수확 보장과 현물세 징수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최한진 그림

—여보동무! 우리 곡식은 이렇게 알이 여므렀는데 빨리 적기추수 및 탈곡 사업에 대한계획을 세우시요
—아직 잠자고 있으니까요?

파리에 대한『두가지 대우』

현광수 그림

아주머니—에구웬파리가 사람몸에 자꾸만 달려들까
음식물 —내몸엔 파리천지외다 아주머니는 내몸에 달려든 파리는 어째서 그냥 두는거요?

평양 선양동 제1인민시장은 청소사업이 잘되지 않고 소채 판매점과 행상인들이 집결하여 있는 곳이 불결하며 음식점들에서 버리는 오물에 파리가 왕왕 거리고 있다

사업에 소홀한 일꾼

중앙 제3건설 트레스트 지배인 박태영 동무가 상부의 지시로써 자기 기업소의 『자재 실사 등록위원회』를 조직한것은 지정된 기일보다 일주일이 늦어서이다

위원인 자재부장 김태일 동무가

『위원들의 사업분공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문의하였을때

『사업분공이야 간단하지! 위원이 나온데는 그 위원이 맡고 위원이 나오지않은 사업소는 자재부장과 통계부장이 한번식 나가보면 될것이요!』박태영동무의『사업분공』은 아주 간단하였다

그후 여러가지 건설사업으로『분주히』돌아다니는 중에 박태영동무의 머리속에서 자재 실사 등록사업이 거이 잊어진 7월 31일 아침이였다

자재부장 김태일동무가 지배인실에 와서

『자재 실사 등록사업에 동원될 인원들의 강습회를 속히 가져야겠습니다』하고 제의하였다

『사업이 바쁜데 언제 강습회까지 가지겠소?』

『그래도 상부에서 지시한 기일보다는 벌서 엿새나 늦었습니다』

『그럼 래일 간단히 소집하도록 하시요』여전히 지배인의 사업처리는 매우『간명』하였다

8월 1일 개최된 강습회는 참가인원이 절반도 되나마나 하였고 실사등록 방법을 설명하는것으로 『간단』히 진행되였다 이리하여 실사등록사업은 시작되였다

바로 그날 오후에 벽돌 재고량 실시를 위하여 창고앞에서 로동자들과같이 산재한 벽돌을 정리하는 자재부 리경천 동무를 발견한 지배인은

『아니 그래 동무! 건축사업으로 10년이상이나 밥을 먹은 사람이 목측으로 한번 쭉 훑아보면 다 알게 가지고 사업이 바쁜데 언제 벽돌을 세고 있겠소?』하고 톡톡히 핀잔을 주었다

자재등록 사업을 8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것을 지배인 박태영 동무는 다만 8월 1일 하루 사이에 하는것으로 잘못 알고 자재실사 등록 사업을 형식적으로 망탕하였다

중앙 제3건설 트레스트의 자재 실사 등록 사업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들은 상부의 중간 지도 검열에 의하여 적발되였다

그중 몇가지만 들어보아도

첫째……각건설 현장에 출고한 자재는 루하한것으로 간주하고 실사등록에서 제외한것

둘째……자재의 수량을 반드시 계량 및 측량하여 장부 및 현품과 대조함이 없이 눈짐작으로 실사사업을 한것

셋째……자재를 저탈 탐구하기는 고사하고 장부상에 있는 제1사업소의 내화벽돌 1만3천매를 루락시킨것

넷째……특히 각 건설장과 상하차장에 적치된 자재들을 품종, 품질, 규격별로 정리하지 않고 실사등록에서 루락시킨것

지배인 박태영 동무는 국가 자재 실사 등록사업에서 범한 소홀행을 시급히 고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석팔봉)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자

—자기집에서—

—돼지 물을 더 주구려!
—방금 줬어요
—그래도 더 주란 말이요

최한진 그림

—우마임경소에서—
—소장동무! 사료가 다 떨어 졌어요!
—사료를 운반해올때까지 기다리구려……

안변군 우마임경소 일군들은 국가의 귀중한 재산인 말을 무책임하게 관리하며 심지어는 굶이기까지 하고 있다

일부 기업소들과 예산기관들에서는 아직 재정규률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엄중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외주 수의 연구소에서는 「적은」재정규률을 위반하는 데로부터 차츰 커져 1천3백만원을 유용 랑비한 사실이 있다

바늘 도적이 소도적이된다

—장사 밑천으로 꿔주는것 쯤이야 얼마던지……
장진광 그림
—공금인덜 살짝 리용하고 메워 넣면 누가 알거 뭐야……

『자유』의 녀신을 현관에 장식한 아메리카는 『맹견조심』을 내붙인 집처럼 그 실은 자유가 없는 나라이다

아메리카에서는 허리웃드 깽그영화식 『자유』는 횡행하고 있어도 진정한 인간의 자유는 허용되지않고 있다

매주에 기관단총을 란사하며 다만 흑인이라는 리유 한가지만으로 범치하는『자유』는 아메리카의『점잖은』상원의원 맥카디가 고함치는 말이다

초 스피드로 질풍을 일으키는 자동차가 뉴욕 "맷드에드"의 빈민굴을 침습하며 곤두박질하는『통쾌한 자유』에 보스톤 신학교장이 유쾌한 우슴을 터친다

아메리카식『자유』에대한 례찬

아메리카의 장사군들은 이것이 가장「효과」있는 상표 광고란것을 리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의『자유』가 일단 하리웃드나 시카고의"싸톤" 부로웨이의 카바레, 뽀스톤의 메쏘지스트 회당 권외로 나서게만 되면 기필코 그림자처럼『비미행동 조사』가 뒤따른다

맥카디는『유쾌하게』웃으며 고문구를 들고 모든 인간들을 훑혀본다

아메리카 원자력 연구의 권위자 오펜하이머도 아메리카를 폭파할 『폭동의 위험분자』라고 지목된다 청백하고 그 젊은 로젠버그 부처를 학살한 글에 천진란만한 그들의 어린이까지 원자탄보다 더 무섭다고 아메리카의 신경은 발작한다

이름만 들어도 우슴의 훈풍이 흐르는 챠리 챠푸린을 국외에 추방함으로써 우슴의 자유마저 국외에 추방하였다

로씨야의 위대한 한작가는 인간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노래하여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굴이며 온마음, 생각—모든것이 다 아름다워야 한다』고 웨쳤건만 오늘『자유의 녀신의 나라』는 아메리카에서는 어이 이다지도 인간들의 얼굴이며 온마음, 생각—모든것이 행행한 바람을 일으키며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며 온 마음, 생각—이 모든것을 비미행동조사 렌즈를 통하여 감시하라 한점의 인간성이라도 있거든, 그얼굴 그마음 그생각을 감금하라!』

아메리카의『자유의 녀신』 맥카디는 고래고래 소리지른다

『이제는 체면도 볼 필요없다 일체의 자유를 자유의 녀신의 제단앞에 희생으로 바치라!』

아메리카의 목소리는 지구상 자기 세력권내의 모든 지역을 이『진리』로 덮으려 하고있다

시카고 소굴에서 권총질을 배웠고 부로드웨이 카바레에서 고기뜯는 법을 배운 리승만이가 아메리카식 『자유』를 방매하고 있는 남조선에서의 현실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개방성 결핵환자 백만명 이상이 우굴거린다

아동 사망률은 천명에 2백 20명이라는 세계 최고기록이다

서울 거리를 미군자동차가 무인도를 달리듯 질주하면서 조선사람들을 깔아치운다

지난 5월 한달동안 서울 시내에서만도 366명의 인명살상을 냈다 방대한수의 녀성들이 인육시장에서 신음하고 있다

소집명장 한장에 1백만원, 이『공정가격』을 지불만 한다면『주검의 대렬에서 면제한다』고 공공연히 광고하고 있다

오늘 아메리카식『자유』가 범람하고 있는 남조선의 면모를 서울신문에 현재 련재중인 정비석의 장편『소설』『자유부인』이 잘 보여주고 있다

동물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매일같이 젊은이를 갈아대는『자유부인』의 방종한 생활을 이자는 그리고 있다

이와같이 아메리카의『자유』가 깃든곳마다 푸른 청춘이 아니라 누—런 무덤에의 장송곡만이 절망을 읊조리고 있다

있는 대로 긁어모은 아메리카의『가수』들이 아무리 목청을 돋구어 아메리카식 『자유』를 례찬하드라도 썩은 고름 냄새와 신음소리로 충만된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그어떤『향내나는』보자기로서도 결단코 가리울수는 없다

이제는 아메리카『자유의 녀신』도 마귀가 되였다

아메리카식 『자유』의 겉면목은 남김없이 폭로되였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 자신들의 직접 체험을 통하여 아메리카식『자유』가 어떤것인가를 너무나도 뚜렷히 알고 있다

연 미복과 씰크햇 차림에『송가』를 부르는 그『문명』한 외양 한꺼풀속에 털부숭이 짐승이 들어있는 것을 모를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게 되였다

인류량심의 이름으로 아메리카식『자유』를 리승만도당과 함께 소멸해 버리자!

김철석

꿰매도 꿰매도 터지는 걸—

리영춘 그림

전쟁 광신자인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또다시남조선을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전선에서의
패장이며 악명높은 교형리인 전미군 제8군단 사령관 밴 플리트를 남조선에 다시 파견하였다
그는 괴뢰군증강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특별지시로" 남조선 청년들을 닥치는대로 강제 징모함에 발
악하고 있으나 인민들의 항거에 의하여 실패당하고 있다

밴 프리트의 극동려행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 특히 아세아 인민들은 제네바회의에서 인도지나에서의 평화적 조정문제의 승리적인 해결을 한결 같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호전분자들은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이 달성한 성과를 무시하고 국제긴장 상태를 지속시키여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 모험정책을 추진시키려고 계속 책동하고 있다

미국 출판물들은 미 국무성 당국이 인도지나에서 정화가 달성되였다 할지라도『아세아에서의 반공산주의 방위공동체를 결성』하기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평화를 고수하려는 아세아인민들의 념원을 무시하고 미국 전쟁상인들이 아세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는것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특사』밴 플리트의 극동려행에서 뚜렸이 나타났다

악명 높은 호전분자 밴 플리트는 아이젠하워의『특사』의『사명』을 띄고『극동의 군사 정세를 검토』한다는 목적밑에 2개월 동안에 걸쳐 극동각지를 싸다니고 워싱톤으로 돌아갔다。

밴 플리트의 장기간에 걸친 극동려행의 목적은 일본 남조선 대만 및 비률빈등에서 괴뢰군들의 병력을『증강』하며 아세아에 있는 미국 괴뢰들을 묶어세워가지고 동남아세아 군사동맹과 같은 아세아의 또하나의 침략블럭을 조작 하려는데 있었다

미 제국주의자 들은『공산주의에 대하여 더는 한인치도 양보 할수없다』고 떠벌리면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방위선』의『외각진지』를 이루고있는 일본 남조선 대만 비률빈등에서『방공 군사 잠세력을 강화』하며 이들을 규합하여『반 공산주의 블럭』을 형성하려고 날뛰고 있다

밴 플리트가 첫번째의 극동려행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아이젠하워와 미 합동 참모본부 및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한것은 바로 이러한 계획을 자체 폭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아이젠하워에게 미국이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도발하기 위해서는 전초 부대로서 리용될 아세아에 있는 미국의 괴뢰들의 병력을 확장 및 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악명 높은 전쟁방화자 밴 플리트는 아세아에서의 새로운 침략을 위한 길을 닦기위하여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젠하워의『특명』으로 또다시 극동에 파견되였던 것이다

6월 11일부터 두번째 극동려행을 시작한 이해 밴 플리트는 일본 남조선 대만 비률빈을 싸다니면서 워싱톤의 늙은 주구들인 요시다, 리승만, 장개석, 마그사이사이 등과 장시간에 걸친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회담들에서 밴 플리트는 상기 미국 앞잡이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증가하는 한편 괴뢰군을『증강』하는 동시에 미군사 기지를 확장하며 침략적 군사블럭을 창설하기위한 조치들을 토의 하였다

밴 플리트는 동경에 도착하자 요시다도당과 비밀회담을 열고 일본 군국주의를 급속히 재생시킬데 대하여 요시다에게 압력을 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신문들이 보도한바에 의하면 일본 인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일본의 재군국화가『완만』한 것에 대하여 밴 플리트는 불만을 표시하고 일본이 재무장을 빨리 서둘러『아세아 반공동맹』에 일본 군대가 주력부대로 참가하도록 요시다에게 요구하였다

남조선에 나타난 밴 플리트는 리승만 도당들과의 비밀회담에서 이미 그가 남조선 방문시에 괴뢰정부에게 준비시킨 괴뢰군의『증강계획』과 군사『원조』의 도입 계획을 다시『검토』하였다

밴 플리트가 남조선으로부터 떠나간 직후에 늙은 주구 리승만이 워싱톤에 있는 그의 상전을『방문』할것을 결정한 사실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외국통신들이 보도한바에 의하면 늙은 주구 리승만역도는 그의 졸개들을 데리고 워싱톤 상전을『방문』하고『북진계획』을 위한 괴뢰군『증강』문제 및 침략적 아세아 군사 블럭 형성문제등 미제의 전쟁 준비 정책으로 부터 흘러나오는 문제들을 제기 하고 있다

제네바회의에서 미제와 함께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파탄시킨 리승만 역도가 더러운 잔명을 유지하기위하여 그의 상전의 새로운 군사적 모험의 앞잡이로서 행동하려고 지금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제는 그들의 비호하에 리승만 장개석 및 요시다 도당들간에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다

밴 플리트는 금번 극동려행에서 요시다도당과 리승만 도당의『합작』을 설교하였다

남조선 동양통신이 보도한바에 의하면 밴 플리트는『우선 한국과 일본간의 우호관계를 수립』하도록 리승만에게『강력히 지시』하였다

또한 금번 밴 플리트의 사명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호상 안전 협정』이라는 명목하에 최근 미제가 리승만과 요시다 도당간에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장개석 도당사이에도 쌍무 군사협정을 체결하기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조약의 체결을 위한 흥정은 미제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개시하는데 장개석도당을 리용하려는 목적밑에 중국 령토인 대만에 대한 비법적인 점령을 영구화 하려는 음흉한 목적에서 나온것이다

워싱톤에서 전하는 유•피 통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8월에 제1차로 장개석 도당에게 젯트기를 제공 하기로 되였다

이 젯트기들은 미제 사수하에 장개석 도당이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적 도발 행동을 감행하는데 리용될것이라고 동통신은 보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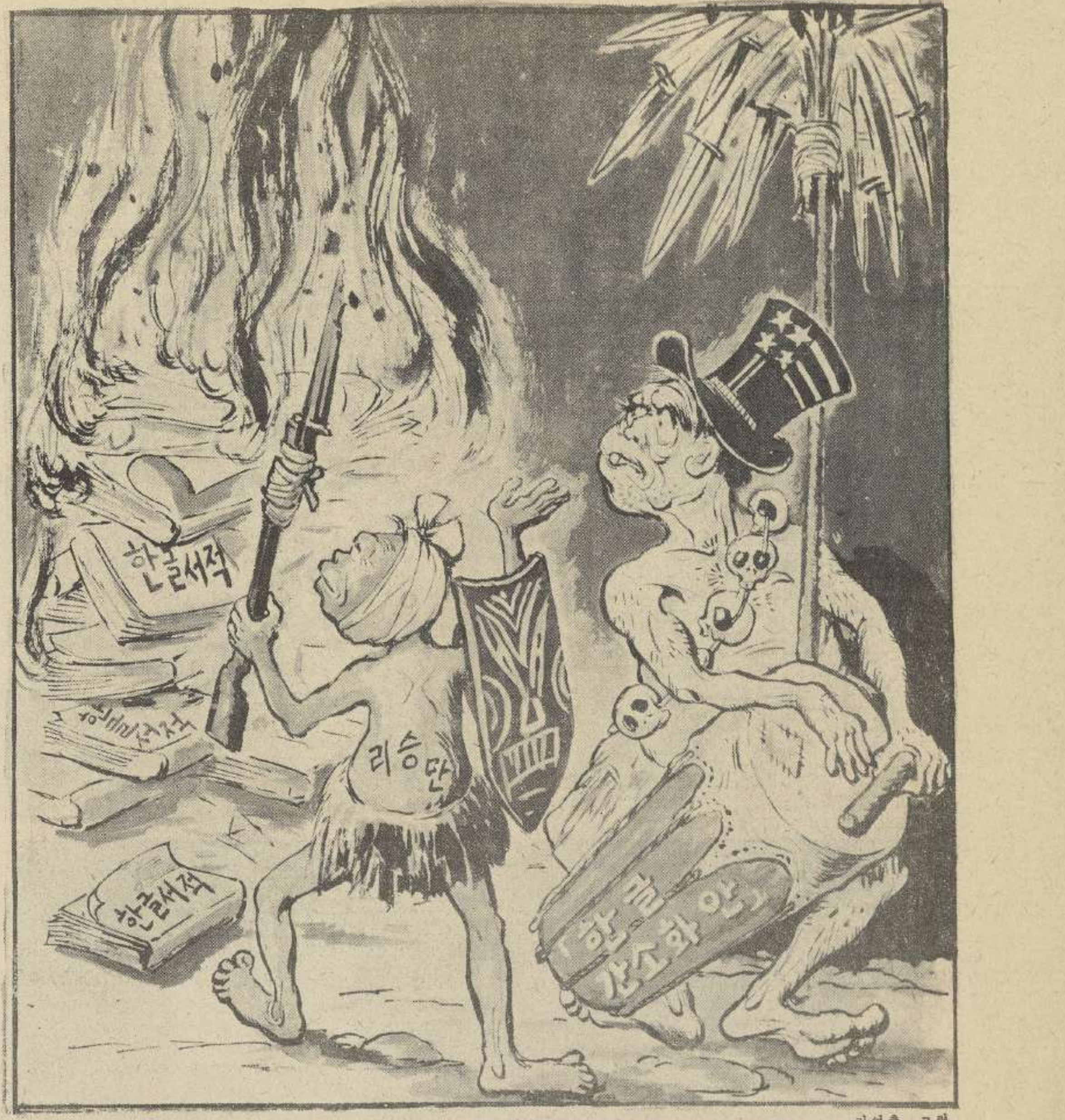
악명높은 패전장군 밴 플리트의 극동려행은 미제가 이미 파산된 그들의『힘의 립장에 선』정책을 아세아 인민에게 계속 강요하려고 발광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늘 장성된 아세아 인민들은 미제의 이러한 책동을 결코 용허하지 않는다 쏘련을 선두로한 민주진영의 위력은 1년전에 조선에서 포성을 멈추게 하였으며 8년여에 걸쳐 타오르고 있던 인도지나 전쟁의 불길을 끄는데 성공하였다

주은래 총리와 인도 네루수상들이 회담의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더욱더 견결히 투쟁 하도록 아세아 인민들을 고무추동 하였다

만일 미국 호전분자들이 무모하게 새로운 침략적 모험을 개시한다면 그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고립될것이며 심대한 패배를 당할것이다 (심 명 억)

과학을 모욕하는 20세기의 야만



리영춘 그림

미제와 리승만역도들은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근거하여 소위 "한글간소화안"을 공포하였다 철자법을 부정확하게 함으로써 조선어을 비과학성에로 퇴보의 길로 몰아넣으며 조선의 유구한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20세기 "야만"의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들의 항거에 의하여 이 기도는 실패되고 매장되고 있다

미국식 「자유의 진렬장」

물려 받은 일제 유산

맥아더 포고령의 본질은 점령 첫날부터 조선인민의진정한 주권인 인민 위원회들을 해산하며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것으로써 특징을 지였다

월가 빌딩의 번견

5, 10 망국단선의 첫 "대사"
—상전님 그대의 이 고나들을 놓치 마시오 그러면
상전님 요구대로 내나라인들 못팔어 먹겠소—

리승만의아가리는 미국놈의아가리

「한미 매국 경제협정」은 남반부의 지하자원을 송두리채 략탈하기 위한 수단이다

양 키『도 덕』

"목적을 위하여서는 인류도덕과 량심마저 저버린 미제는 세균, 고레라 까지에 자기 운명을 위탁하고 있다

야 합 지 졸

네 녀이들을 짝 지어주려니 합심하여 나를 잘섬기바

아이젠하워의 호출

박승히 그림

아이젠하워는 백아관으로 로구 리승만을 호출하여 개소리를 짖 게 했다

평화는 전쟁을 제어한다

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념원 한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쟁의 불길을 종식시키고 인류의 친선과 단결의 리념을 고수하며 견정한 평화를 수립 하기 위하여 투쟁 한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평화와 민주진영의 위력은 1년전에 조선에서의 포성을 멈추게 하였으며 또 오늘 8년에 걸쳐 타오르고 있던 인도지나 전쟁의 불길을 끄는데 성공하였다 조선에서의 정전 달성과 더부러 인도지나에서의 정화는 국제 긴장상태를 가일층 완화하며 세계 평화와 국제안전을 유지 공고화하는길 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놓았으며 전세계 평화 및 민주력량의 거대한 승리로 되였다

그러나 월가에 앉아 수백만 인민의 피로써 그의 뱃가죽을 기름 지우고 있는 전쟁상인들은 지구상에서 전쟁의 불길이 사라짐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다

전쟁의 불길 침략의 나래 밑에서 불타 버리는 도시들과 마을들 피흐르는 시체 또 많은 어머니와 어린이들의 림종의 고민 에 대하여 쾌감을 느끼는 이 죽엄의 장사군들은 제네바회의에서 인도지나 문제에 대한 합의도달의 전망이 보이게 되였을 때에도 회의에서 보이코트 할려고 시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제네바회의의 최종 선언서의 접수를 단독적으로 거부하는 등, 인도지나 문제에 대한 합의 도달이 평화확보를 목격한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세아에 대한 소위「공산침략」이 더욱 「확대」될것이라는 전쟁 히스테리적 소동을 제멋대로 이르키고는 그에「대항」하기 위함이라는 구실 밑에 침략적 「동남아세아 군사블럭」의 조작을 더욱더 발광적으로 떠들었다』

그러나 7월 20일밤 나송궁전에서 월남과 라오스에서의 정화에 관한 협정이 조인 되였으며 캄보쟈에서의 정화협정도 뒤이여 조인되게 되였다

전쟁광신자 아이젠하워는 "애도의 뜻을" 금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미국이 좋아 하지 않는「특수한 점들」이 포함되여 있다』고 공공연히 비난하며『미국은 동남아세아 동맹을 창설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 시킬 것이다』 라고 침략적 야망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충실한 개 리승만은 가슴이 답답하여 통곡하였다 『리승만괴뢰정부 고관』들은 모두 락망의 표정으로 인도지나 휴전조인의 보도를 읽었으며』『경악과 비분을 금치 못하였다』고 평화의 전망앞에 멸망해 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통곡하였다 평화를 반대하는 인간쓰레기들의 장송곡은 놈들에게 있어서 『구슬프기』 짝없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제네바회의에서 당한 이 수치스러운 외교적 실패와 그의「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막말은 골목에서 받은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더욱 모험정책의 감행으로써 자살의 길을 찾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가장 충실한 개 리승만을 불러 7월 2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미리 작성한 푸로그람에 의하여

『당신이 생각나는 대로 떠 벌리다가는 또 실수 할터이니 당신은 우리가 써놓은 원고대로 읽기만 하란 말이야 그러나 당신의 확신있는 말처럼 힘있게! 아주 그럴듯 하게 읽어야 해 그래서 세계의 여론 더우기 우리 친구들의 반응을 들어보자는 거요『동남아 방위동맹』『구라파 방위공동체』의 조속한 조작에 긍정적 작용을 할수있는 연설을 하게』

이렇게 가르키어 리승만을 스피카로 하여 연단에 내어 세웠다

늙은 개 리승만은 괴뢰군 중장과 아울러 상전의 비위를 맞춰가며 종래의 부진에서 더 깨어 꺼리낌 없이 중국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며 더 나아가서 쏘련에 대한 수소탄 전쟁을 이르킬것을 외치면서『이러한 방법이 『자유세계』를 위하여 훌륭한 일이다』라고『용감』하게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어쩌하랴!

전세계 평화 애호인민들은 미국 전쟁상인들과 그 주구 도배들의 전쟁 책동을 최대의 격분으로써 규탄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제의 「동맹국」들에게서 까지 비난을 하고 있다

전쟁소동을 좋아하는 미 국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리승만의 폭언에 냉담한 태도로 "무시 무시한용감성"이라고 완곡한 조소를 보냈으며 국 반동신문 뉴욕 타임스지 까지도「불행한 연설」이라고 공격하였다 영국의 신문 오크셔 포스트지는 『이 남자는 괴물은 마음을 가진 위험물이라고」하였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세계 선량한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며 념원 한다

전쟁광신자들의 전쟁도발 음모와 칼포니야 항공기공장 주들이 군비 생산에 광분하며 폭탄을 더욱더 저축하고 있는 것이 인류의 생명을 빼앗으며 세계에 불행을 가져 오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세계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던지 또한 어디에서 살던지 수억만 선량한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며 단결되어 일어섰다 오늘날 세계 평화와 민주진영의 력량은 전쟁을 재발하려는 어떠한 범죄적 시도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리만큼 장성 되였다

1년전 조선에서 정전협정의 조인에 응한 것이나 베르린 4렬강 외상회의에서 제네바회의의 소집에 동의하고 그의 결과로써 인도지나에서의 정전달성을 보게된 것도 결코 미제 자신이 원하여서 된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를 넉넉히 실증하여 준다

미제의 전쟁도발의 모험은 반드시 파탄될 것이며 평화는 전쟁을 제어한다

리 송 원

공포에 떠는 매국노

백인균 그림

—대통령 각하! 금년 8, 15는 좀더 삼엄하게 특별 계엄령을 실시해야 겠습니다

—애! 애! 지금 이시각에도 무슨 일이 날줄아느냐? 너부터 빨리 나가서 내방문 앞을 경비하란 말이다!

「미국 생활 양식」이

비저낸 불가피적 현상

날로 빈궁화 되어가며 령락되어가는 미국 인민들의 생활과 또한 "미국식 생활양식"이 비저낸 결과는 미국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신상태에 악독한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지배층의 대변자인『유·나이테트 스테이트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여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로 하였다—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 기간에 미국은 二六세 이하의 청년 三六〇만명을 대포 밥으로 모아왔는데 그중 一七〇만명……약 반수가 정신 이상, 심장병, 폐병, 등등의 각종 질환으로 도저히 대포밥의 역할을 할수없는 불구자들이 였다—

소년들의 형편도 마찬가지로 엄중하다 미국의 어떤 연구 기관이 四천五백명의 소년들의 신체검사를 해본 결과 그중 신체의『최저건강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것이 五六, 六%에 달하였다

미국의 청년과 소년들의 이와같은 체력의 보편적인 저하는 인민들의 대중적 빈궁화하는 경제적 조건외에 또한「미국식 생활양식」의 기타 독소들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영국기자 카동은「1953년의 미국」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1 억 6천만의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효과적인 "문화적" 도구의 중계를통하여 계통적으로 풍습을 파괴하고 금수화하는 대상으로 있는바 그 목적은 맹종 무사상, 무원칙 무리한대포밥—제국주의 군인을 제조 하는 데 있다』

지난 三월 미국상원 사법분과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1952년에 미국에서는 三八만 五천명의 소년들이 법정에서 각종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그밖에 백만명 이상의 소년이 경찰에 체포되였다

이와 같이 타락한 현상은 미국의 청년과 소년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동시에 그만 못지않는 정도로 그들의 신체를 파괴하고 있다

청년과 소년들의 정신을 타락 부화하기 위한「미국식 생활 양식」은 또한 불가피적으로 이렇듯 그들의 신체를 「최저 한도의 표준」이하로 만들고 있다

박 순

"정 정"

본지 四三호 七페지에 게재한『무사태평한 일군들』중「지배인 차병길 동무」는 『지배인 윤만호 동무』로 정정함

（활살편집실）

取扱店 學友書房 東京都千代田區富士見町二ノ四

고립무원한 미제

장진광 그림

인도지나의 정전협정은 미제와 그의 추종자들의 또 하나의 참패로 되였을 뿐만아니라 전쟁 정책을계속 고집하는 놈들의 멸망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되였다

늙은 여우가 운다

리승만—애리스……인도지나에서 정전협정이 되였으니……내목숨이 끊어지는것 같소……슬프도다 슬프도다 아이구 아이구……애리스……참, 통곡할 일이요 애리스—여보당신……눈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소, 아이구데고 아이구……

장진광 그림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LIBRARY OF CONGRESS
0 041 643 824 9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책임주필 강진장　발행소　활살 (시사만화잡지) 사　인쇄 1954년 8월 20일
인쇄소　국립종합인쇄소　발행 1954년 7월 25일
ㄱ—2[illegible]117　(값90원)